

기독교대안학교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과 인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한수정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교육학과 특임교수)

I. 들어가는 말

고령화, 저출산으로 학령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현대 사회의 흐름은 급속한 변화로 청소년의 가치관과 자아정체성의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제 간의 교류와 평생교육 제도의 확대,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현대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특성 및 변화를 고려한 적합한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최근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염유식 외, 2016), 청소년 시기의 자살 시도율은 높게 나타났다(김인규, 조남정, 2006; 1189-1202). 특히,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문경숙, 2006; 143-157) 보고된 바 있다.

한국의 대안학교는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여 공교육과 차별화된 새로운 교육의 도전으로 설립되었으며,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기독교적인 교육이념, 교육 목적 및 방법에 있어 청소년들의 영, 육, 혼을 삶 속에 심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교육 실천을 시도하고 있다. 공교육의 학교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성의 증가, 비인간화, 입시 위주의 경쟁적 분위기, 학업의 중도탈락 등 여러 위기에 놓여 있는 기존 교육의 풍토에 대체할 수 있도록 기독교대안학교는 독자적인 이념과 새로운 교육의 실현으로 청소년의 교육문화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 속에서 강화되어 가는 청소년들의 성찰 없는 지식습득, 인간성의 상실, 인성교육의 간과 등 여러 문제와 한계의 극복을 위해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토대로 한 교육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기독교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의 만족, 인성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홍기순, 2010; 김소연, 2012 ; 최원준, 2016; 이현주, 2016; 안지혜 외, 2016; 신승범, 2017; 함영주, 2017)가 수행되었으나 청소년의 신앙생활, 교육만족이 학교생활만족 및 인성에 미치는 효과성에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 학생들의 개인 특성, 신앙생활, 성경수업, 독서수업이 학교생활만족과 인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신앙발달 및 성숙에 기여할 근거이론과 정보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기독교대안학교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의하면, 청소년 시기는 형식적인 조작기로서 추상적인 것에 대해 사고가 발달하여 현실을 벗어난 가능성, 미래에 대한 사고능력 및 가설의 설정으로 논리적 추론을 전개하며 여러 생각을 조합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은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성적인 면 등에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사춘기의 신체적인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간다. 특히, 자신의 신체적인 면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심리적인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이종복 외, 1998). 이에 청소년 시기는 사회적 요구 및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로서 학생 자신이 스스로 안정되고 통합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 기독교적인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타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자신과 상황에 관해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 형성된다(McGrath and McGrath, 2003; 118-28).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의 자아중심성이 강해지며, 신체적 변화와 성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성 적응 등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즉, 기독교적 가치교육을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객관적 자아정체감을 수립하고 의미를 발견하여 긍정적 인성의 형성 및 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입시 위주의 학업스트레스와 비문화적인 생활,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 기성세대와의 갈등, 쾌락 위주와 학교폭력성 등 이러한 무분별한 청소년의 세태로 발생하는 와 문제들과 비문화활동에 대비하여 학교 교육자와 지역 교회의 관계자, 사역자는 청소년 개개인의 독특성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마음의 수용적 태도로 청소년의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인생관과 가치관, 교육관, 사회관, 신앙관을 정립하게 하는 통합적, 전인적인 중요한 교육기관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종교교육을 배제하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교육은 경쟁적 구도 속에 인간성을 상실하는 등 여러 문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학교폭력, 총기사용, 파괴적 행동 등의 개선을 위해 벌인 '인성 교육 운동'을 통해 문제행동의 감소와 시민의식의 향상을 끌어낸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에 정부는 예방적 차원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대안학교의 형태는 특성화 고등학교, 비정규 대안학교, 프로그램 형태, 홈스쿨링, 계절별 교육, 방과 후 및 주말을 활용한 학교, 기독교대안학교 등 다양하다. 한국의 기독교대안학교는 일반학교의 교육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성의 회복과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린 창의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학교의 유형으로 시도되었으며, 약 1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기독교교육은 평생교육으로써, 연구를 통해 이론을 만드는 학자와 실천에 종사하는 실천가가 서로 상호 간 존중하는 마음, 협동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김도일, 2019; 52). 신앙생활을 통해 복음화하는 과정은 크게 영성, 참례, 생활 부문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 고찰을 위해 청소년들의 신앙적 영성과 도덕적 가치관, 종교적 회심, 종교생활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동기, 2003; 31). 기독교 관점에서의 성숙한 신앙인은 의사소통에 있어 효과적 기술을 갖고, 하나님, 이웃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요섭, 2007; 376-379). 또한, 건전한 윤리적 가치교육을 위해, 타인과의 관계성을 위한 인성계발과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해 기독교교육의 교육 관계자 역할은 중요하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의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교과과정 및 방법, 교육은 청소년의 발달과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실적 사회 변화 흐름에 따른 교육 실천으로 청소년의 생활에 즐거움과 변화를 도모하여 삶의 만족과 인성을 함양하게 하고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2. 학교생활만족과 인성 관련 요인

기독교대안학교는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전수해주는 신앙교육을 근본으로 지식습득과 인성의 계발,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 및 가치관의 형성을 돕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지적, 도덕적, 영적 능력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Stott(2011; 547)은 기독교교육은 통합적이고 온전한 인간성을 가진 기독교인,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사회인의 육성을 위해 성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교는 청소년에게 있어 다양한 관계와 성취 및 실패를 경험하는 공간이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인격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삶의 장소이다. 특히, 공교육의 대안적 역할을 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한정된 공간과 기독교적 교육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신앙생활, 공동체 활동, 자주적 문화활동의 활성화 기회, 체험적 신앙의 배움 습득을 위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만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가치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며, 창의적, 잠재적 능력의 계발과 발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생활만족이란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전반에 대해 갖는 감정으로서,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외부 경험에 대한 호의적, 비호의적 느낌 또는 태도의 만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생활만족은 종교 활동을 기반한 기독교대안학교의 특성을 감안한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박상진과 조인진(2011; 121)은 기독교대안학교를 기독교 미인가 학교, 기독교 국제학교, 기독교 수월성 학교, 기독교 공학 학교 등의 유형 분류와 기독교성, 국제성, 수월성, 공학성, 대안성의 특성들을 제시하면서 각 유형에는 여러 특성이 공유될 수 있어 학교의 정체성확립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 기준에 관한 의견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독교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홍기순, 2010; 327)에서는 학생들이 공교육의 엄격한 규율과 폭력적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및 효율적 진로, 신앙의 기대 등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하며, 교사와의 신뢰적 관계, 자율적분위기는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과 신앙교육이 기독교대안학교의 차별성 및 대안성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검토, 지역사회 연계성 및 개방성의 부족, 사회적응력 약화 등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이처럼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은 청소년의 인간성 회복에 유익하다. 일반학교의 대안적 역할을 하며, 신앙교육 및 훈련을 통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 효율적인 교육 효과성을 가져와 학교생활의 만족에 있어 긍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대안학교 졸업학생의 교육성과에 관한 연구(이은실, 강영택, 2011; 481)의 사례에서는 삶을 보는 시각 변화, 상호신뢰의 인관관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교육목표 수용과 삶의 방향을 그에 맞추어 재조정 과정을 거친다고 제시하였으며,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알고 인간관계의 긍정적 함양을 거쳐 학교의 다양한 생활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사춘기의 중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교육환경과 새로운 변화에 관해 정서적으로 큰 기복을 나타낼 수 있다.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안지혜 외, 2016, Gross, 2007)에서는 여러 정서적 문제들이 삶의 만족에 있어 부적관계를 나타내어 우울감은 높고 사회적 소외감으로 적대감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urns(1988)는 청

소년들의 필요에 대해 사랑, 도전, 책임감, 문제 상담, 격려, 은사 확인,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Simone과 Simone(1996)은 기독교 청소년 교육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꿈과 비전, 좋은 습관 등을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 강조한 바 있다. 기독교 교육자는 자신의 큐티와 정리 시간,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며, 교사 역시 자신의 멘토에게 배우고 도움을 받아야 함(Burns, 1988)이 강조된 바 있다. 즉, 기독교대안학교의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신앙생활의 교수자 모델링이 강조된다. 청소년의 정서적인 문제가 기독교 외 타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나타낸 연구(이현주, 2016)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발달, 정서적인 문제의 최소화로 성공적인 학교 적응 및 삶의 만족도 형성은 이후의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종교는 긍정적 정서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기도와 명상 등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적게 경험한다(Emmons and Paloutzian, 2003). 또한, 종교성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성을 보인 바 있다(Smith et al., 2003). 따라서 종교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대안학교는 기독교 교리와 가치관을 접목한 교육목표와 세계관에 따른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있어 효율적인 만족의 성과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인성은 전인을 포함하며, 개인의 마음, 선택, 결정, 행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치관, 태도, 성품, 공감능력, 협동심 등의 내적능력은 중요한 능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신승범, 2017; 5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26)에서는 인성에 관한 덕목을 정직과 배려, 예절, 성실, 바른 생활의 습관, 정의, 공동체 의식, 인내, 책임감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적 인성교육의 덕목에 관해 함영주(2017; 557)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온유, 양선, 절제(갈 5:22-23)로 설명하였다. 기독교의 인성교육은 신앙공동체와 관련된 가치 및 덕목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초월적 하나님 나라의 공간 개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영적인 훈련 같은 경건을 목적으로 하는 영적인 습관은 기독교적 인성의 형성에 유익한 영향을 나타낸 바 있다(신승범, 2017; 538). 이현주(2016)는 교회출석을 통해 기독교적 인성교육으로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경험의 감소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독교적 인성교육, 기독교적 가치관 바탕의 정서조절 훈련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Comenius(1957; Cap, 4. 2-4)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이성적인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으며, 지성교육, 덕성교육, 신앙교육으로 교육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독교적 교육을 통한 가치의 형성으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간상과 인식, 태도, 행동 등 긍정적인 변화는 중요하며, 지성교육, 덕성교육, 신앙교육을 목표로 하여 인격적인 변화로 인한 인성 함양은 의미가 있다. 최원준(2016; 46, 52)은 인성교육과 관련해 성경의 교과서적 기능을 제시하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있어 유익하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독교인성 신앙 요인에 관한 연구(한만오, 2018; 201)에서는 성경읽기, 기도시간, 전도경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등의 영향력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인성교육을 위한 연구(김소연, 2012; 19-38)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인성의 계발을 위해 채플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인성이 후천적으로 형성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기독교적 교육의 환경은 청소년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속한 신앙공동체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형성은 청소년들의 성찰과 개발, 다양한 교육 기회 및 성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Whitney(2012; 27)는 '영적훈련'에 관해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으로, 성경 읽기와 기도, 예배, 전도, 침묵, 섬김, 영적 읽기와 쓰기, 홀로 있기 등을 제시하여 기독교 신앙생활과 영적인 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지속적인 신앙기간, 기도 및 말씀묵상 시간 등의 신앙생활은 청소년의 인성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된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학습자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며, 효과적인 성경교수는 사고체계를 바꾸고 내면화하여 삶의 변화 및 체험을 돕는다(이선영, 2014; 276-277). 교사의 따뜻하고 공정하며, 포용적 인격과 태도는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의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최진경, 2011), 성경수업을 통한 교사의 영적 학습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 학생들 간의 인격적 관계 형성을 경험하고 인성함양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교육 지각수준이 영성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찬목, 2013; 242)에서는 초월감, 긍정적인 삶, 타인 관심, 존재 의식 등이 인성의 요인인 신뢰성, 적극성, 타인 존중, 도전의식, 시민의식, 타인배려, 타인관용에 대부분 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신앙교육 기반의 기독교대안학교 성경수업에서 기독교 교육자의 역할과 모델링은 중요하며, 성경수업의 신앙공동체 학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여 인간성 회복과 인성의 변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운영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연구(이인희,한수정, 2016)에서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형성을 위해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바 있다. 학생들의 통합적 독서과정을 통해 시간, 환경, 목적, 선택 등의 'TEACH'모형을 제안하고 실제의 교육현장에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서방법을 활용과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시행하는 독서수업의 교육성과를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신승범(2017; 521)은 온전한 기독교적 인성의 형성을 위해 온전성을 추구하는 교회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모델링 및 멘토링의 시행, 그리고 습관 형성 프로그램 실시 등의 교육방법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인성 함양을 위한 성경수업과 독서수업을 통해 청소년은 미래의 주된 주역으로서 더 나은 성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기관의 관계자와 교수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성공적인 전인적 교육의 실천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교육의 실천으로 학생들의 현재 학교생활의 적응과 만족,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여 더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경 및 독서수업의 교육자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본질적 모습의 변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이에 기독교적 정신을 가미한 교과수업으로의 성경수업과 독서수업 진행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긍정적 인성의 형성 및 발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학교생활만족과 인성에 대한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지역의 A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중학교 1~3학년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남녀학습자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1월 중순경부터 약 2주간으로 120부를 배부하여 100부를 회수하였으며, 자료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한 최종 연구대상은 총 99명이다. A 기독교대안학교는 평생교육인가 기관으로 학생들은 주중 교내 기숙사 생활을 하

고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과 복음, 기독교 정인을 바탕으로 한 성경수업과 독서수업은 학생들의 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운영, 진행되고 있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백성현(2008)이 사용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93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29문항 중 부정 문항에 해당하는 10문항은 역산하였다. 그리고 인성 변화 측정을 위해 현주 외(2014) 연구의 초.중.고 KEDI 인성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총 70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972로 양호하였다. 각각의 문항 점수 여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형 척도 구성이다.

학교생활만족과 인성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18.0 Program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의 적합성 정도의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치와 공차, 분산팽창 요인(VIF), 상관계수를 확인했으며,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기독교대안학교 중학생의 개인특성배경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 성별은 여학생이 55명의 55.6%, 남학생이 44명의 44.4%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종교는 개신교가 87명의 87.9%, 어머니의 종교는 개신교가 97명의 98.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가정의 월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32명의 32.3%이며,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1명의 21.2%가 그 다음 순이었으며, 부모의 학력은 모두 4년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아 아버지는 42명의 42.4%, 어머니는 49명의 49.5%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기간은 9년 이상~모태신앙이 91명의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도 및 말씀 묵상 하루시간은 10분~30분이 53명의 53.5%로 가장 많았다. 성경수업을 만족정도는 ‘보통이다’가 46명의 46.5%를, 독서수업만족은 ‘그렇다’가 40명의 40.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VIF 값은 최대 10.0을 초과하지 않은 1.01~1.44로 다중공선성 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피어슨의 적률 상관분석의 결과, 주요 측정 변인들 간은 부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생활만족 모형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학교생활만족 모형의 F 검증에서 학교생활만족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은 $F=9.684$, $p < .001$ 의 유의 수준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R^2=.427$ 로써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설명량은 42.7%로 나타나 투입된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학교생활만족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었다. 개별 회귀계수의 분석결과, 기도 및 말씀묵상 시간 변인은 학교생활만족에 있어 $\beta=.206(t=2.928)$ 으로써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정적효과를 보였다. 교육만족 변인인 성경수업은 $\beta=.207(t=3.326)$ 로써 $p < .01$ 수준에서, 독서수업은 $\beta=.185(t=3.317)$ 로써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보였다. 인성 모형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유의성은 $F=7.051$, $p < .001$ 의 유의 수준으로 적합하게 나타났으며, $R^2=.352$ 로써 인성에 대한 설명량은 35.2%로 나타났다. 개별 회귀계수의 분석결과, 기도 및 말씀묵상 시간 변인은 인성 변인에 있어 $\beta=.152(t=2.395)$ 로써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

며, 교육만족의 성경수업은 $\beta=.180(t=3.206)$ 으로써 $p<.01$ 수준에서, 독서수업은 $\beta=.101(t=2.010)$ 로써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효과를 나타냈다. 즉, 기독교 대안학교 중학생들의 기도 및 말씀묵상 시간이 많을수록, 성경수업 및 독서수업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인성에 유의미한 효과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기독교대안학교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신앙생활의 요인인 기도 및 말씀묵상시간, 교육만족의 요인인 성경 및 독서수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여러 정서적인 문제들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안지혜 외, 2016; Gross, 2077), 종교성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관계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한 선행연구(Smith et. al., 2003)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인성은 기도 및 말씀묵상시간, 성경수업, 독서수업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효과적 성경교육 통한 사고체계를 바꾸며, 내면화는 삶을 변화와 체험을 돕는다는 연구(이선영, 2014), 기독교교육 지각수준은 영성 및 인성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김찬목, 2013; 242)의 견해를 함께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의 기간보다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묵상 시간이 중요하며, 기독교교육 기반의 커리큘럼인 성경과 독서수업은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과 인성 함양에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공교육 일반학교의 대안적 역할모델 수행을 위한 기독교대안학교와 가정, 교회, 지역사회는 상호 연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인적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청소년의 영성과 신앙 성장을 돕고 건강한 학교생활과 삶을 영위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경 및 독서 수업의 신앙적 교과과정의 적용 및 운영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과 인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의 교사는 지속적인 성찰과 회개를 통해 신뢰 있고 선한 인성교육자로서 학생과의 인격적 만남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신앙과 진리 습득을 위해 기독교 영성 및 신앙 고취를 위한 인성교육 교수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독서수업 담당교사는 자신의 독서습관을 모니터링하고 멘토 역할 수행을 위해 새로운 독서수업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독교 실천 교사공동체와 유기적 연계로 활발하게 협력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수업이나 독서 수업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에 포함된 전 영역, 각 교과에서도 기독교적인 성찰과 해석이 강조되어야 하며, 공감과 소통, 갈등 해소를 위한 실제적 능력을 획득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순환적 이념의 구조적 토대를 마련하여 인성 함양을 포함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경쟁적 구도의 입시 스트레스와 물질 만능주의, 폭력성 등 부정적인 교육환경은 기독교 청소년들에게도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신앙의 본질적 회복에 중심을 두고 청소년의 분노조절과 타인 배려심 형성을 도우며, 학생 스스로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독교 영성 기반의 전문 사역 교육자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 잠재적 능력의 계발과 표현력을 끌어내어 그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 교육기관 및 교육관계자는 기독교교육의 학문 목표와 교육성과, 진로의 지도 및 연계를 위해, 학생들의 정체성 수립과 전인적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고, 교사와의 상호관계, 가족 및 교회 관계자의 지지 등 여타의 변인을 고려하여 영향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중학생의 개별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연구를 병행해야 할 것이며, 기독교대안학교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기독교적 인성덕목 측정도구를 개발, 적용하여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일(2019) "파편화된 인간성을 통합하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21, 52.
- 김동기(2003) "청소년 종교 발달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인문과학논집』. 12, 31.
- 김소연(2012) "한국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채플 활성화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34, 19-38.
- 김인규.조남정(2006)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7(4), 1189-1202.
- 김찬목(2013) "기독교 교육이 영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로고스 경영연구』. 8(1), 242.
- 문경숙(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5), 143-157.
- 박상진.조인진(2011) "한국 기독교대안학교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6(3), 121.
- 백성현(2008). "기독교 대안학교의 종교활동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 신승범(2017) "기독교 인성교육에서 인성개념 도출과 인성교육 방향을 위한 제언". 『신학과 실천』. 56, 521-538.
- 안지혜 외(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중학생 삶의 만족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197-208.
- 염유식 외(2016).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보고서』. 서울: 한국 방정환 재단.
- 이선영(2014). "효과적인 성경교수를 위한 창조적 교수-학습 모형 설계". 『기독교교육논총』. 38, 255-280.
- 이은실.강영택(2011) "기독교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인식하는 교육성과에 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26, 481.
- 이인희.한수정(2016). "초등학생의 바람직한 독서방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6(11).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45-58.
- 이종복 외(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서울: 양서원.
- 이현주(2016). "청소년의 종교기관 출석빈도, 공동체의식, 사회·정서적 적응과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기독교교육논총』. 48, 79-111.
- 전요섭(2007) 『기독교상담과 신앙』. 서울: 좋은 나무. 376-37.
- 정창우(2015)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최원준(2016) "기독교 인성교육을 위한 큐티 목회". 교육목회 특강. 『교육목회』. 48, 46-52.
- 최진경(2011)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 연구". 『복음과 교육』, 10, 6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학교인성교육의 의의와 과제". Position Paper, 9(2), 26.

- 한만오(2018)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독교인성에 관한 연구 : 신앙요인 중심". 『복음과 실천 신학』. 47, 201.
- 함영주(2017) "청년이 인지한 아동기 부모-자녀 애착이 인성 및 영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실천』. 54, 557.
- 현주(2014). "초·중등학생 인성수준 조사 및 검사도구의 현장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기순(2010)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신앙과 학문』. 15(3), 327.
- Comenius, J. A.(1957) Didactica magna. Opera Didactica Omnia. Moderante otokar Chlup. Tomas I. Paris I. Pragae: Academia. Cap, 4. 2-4.
- McGrath, J. and McGrath, A. (2003) Self-Esteem: The Cross and Christian Confidence. 윤종석 역(2002). 『자아존중감: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18-28.
- Stott, J. (2005)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2011).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547.
- Burns, J. (1988) The Youth Builder. Eugene. Ore.: Harvest House.
- Emmons, R. A., and Paloutzian, R. F. (2003)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1), 377-402.
- Gross, J. J. (Ed.) (2007)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Simone, M. A., and Simone, K. J (1996) Teaching today's youth. Colorado Springs: Accent.
- Smith et al., (2003) "Religiousness and depression. evidence. for a main effect and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29(4), 614.
- Whitney, D. (2012) Spiritual disciplines for the Christian life. 『영적훈련』. 서울: 네비게이터.